

**시즌 프로그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시즌 프로그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015년-2016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아시아는 전통이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변화의 장입니다.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의 '아시아'의 의미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수정하고 재정의하며 재창출하는 유기체입니다. 스스로에 도전하는 '사유의 방식'이랄까요. '아시아'는 창의성을 위한 하나의 수행적이고 유기적인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개관하게 될 예술극장은 '예술'을 고민하고, '무대'를 질문하며, '오늘'을 사유합니다. 예술극장은 이러한 성찰과 담론을 지지하고 창출합니다. 제작, 공동제작, 초청 및 레지던시 등이 그 방식입니다. 그 무대는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입니다. 동시에 일상적 삶입니다.

예술극장은 광주의 심장부에 자리잡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한 부분입니다. 예술극장의 비전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교류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는 가장 진취적인 작품의 기획과 제작 그리고 순환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예술 영역에서 구상된 가장 큰 꿈일 것입니다.

- 아시아의 예술이란 무엇까요?
- '동시대' 예술은 무엇일까요?
- 이런 질문들을 포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왜 이 질문들이 필요할까요?

예술극장은 이런 질문들을 촉발시키고 무대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술극장은 장르와 학풍, 관점과 문화의 경계들을 횡단합니다. 차이와 다양성을 지지하고 만들어갑니다. 그것은 곧 삶의 방식,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의 확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술극장이 '예술'을 새롭게 정의내리는 작업은 하나의 완결을 향한 절차가 아니라 꾸준히 갱신되는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삶이라는 극장을 새롭게 이해하고 창출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아시아 원도우	p.4
헬리 미나르티	6
요우미	8
타렉 아부 엘 페투	10
라야 마틴	12
장영규	14
아워 마스터	16
필립 글래스/로버트 윌슨	18
팀 에첼스	20
크리스토프 마탈러	22
히지카타 다쓰미	24
윌리엄 켄트리지	26

시즌 프로그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015년-2016년

아시아 동시대의 지도는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아시아 원도우’는 5개 아시아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5인의 기획자들이 아시아의 중요한 사회적, 예술적 주제들을 포착하고 이를 아시아 공연예술사로 담론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로 다른 아시아의 시각들이 예술극장에서 직조되는 과정은 역동적으로 진행중인 아시아 공연예술의 지도를 그려내는 방법론이 될 것이다. 이는 아시아의 여러 목소리가 외부에 의한 역사쓰기로서 재편성 되지 않고 아시아가 아시아를 서로 듣고 바라보며 관점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역사적 주체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다.

각각의 아시아원도우는 공연, 전시, 심포지엄, 출판 등 입체적인 형태를 통해 오늘날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슈들을 기획한다.

아시아 원도우

헬리 미나르티 자카르타

횡단하는 궤적들:
-또 다른, 신화적 -오리엔트
극장 오픈홀
2015.
10.8 목-10.25 일

전시 오픈닝
10.8 목: 7pm

큐레이터의 전시 투어
10.10 토: 10am

동東
—아르코 렌츠 (코발트 워크스)
극장 2
2015.
10.9 금, 10.10 토: 7pm

사악한 영혼
—야마시타 잔
아틀리에 1
2015.
10.9 금, 10.10 토: 9pm

아르코 렌츠와 야마시타 잔의
질의응답
10.10 토: 1pm

심포지엄: 기초연설과
폐막 대담
10.11 일: 10am

본 전시는 아시아의 무용이 '타자성'이라는 관념에 종속된 흔적들을 따라간다. 전시의 목표는 이를 연대순으로 기록하기보다는 19세기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결정적 순간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데에 있다. 전시는 몇몇 주요 인물들이 자신이 처한 지점/장소와 맞서며 나아간 여정을 가로지르고, 그러면서 그들을 구획하는 기획의 제스처와 관련해 '아시아성'의 구현에 문제를 제기한다.

〈동東〉이라는 제목은 공간을 가리킨다. 〈동東〉은 지도상의 방향이다. 동시대의 신체가 어떻게 오리엔탈리즘을 지도화하는가? 〈동東〉은 그와 같은 질문을 좇아 이질적인 움직임 속으로 들어가는 투영의 작업이다.
인도, 벨기에, 홍콩, 노르웨이, 한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와 유럽 예술가들의 협력이 만들어낸 〈동東〉은 이질성과 '오리엔탈리즘' 속으로 뻗은 공통의 궤적을 반영한다.

사악한 영혼은 어떤 형상을 띠는가? 무대 위의 보이지 않는 스승(발리에서 30년을 살아온 일본의 무용수)이 야마시타 잔에게 젓가락을 잡는 법에서부터 발리 전통 무용의 안무에 이르기까지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지시한다. 스승의 가르침과 야마시타가 발리에 거주하며 겪은 일화가 병치되면서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어딘가로부터 내려앉는다. 야마시타 잔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신화를 불러오며 마침내 자신의 몸을 통해 사악한 영혼의 형상과 형태를 갖추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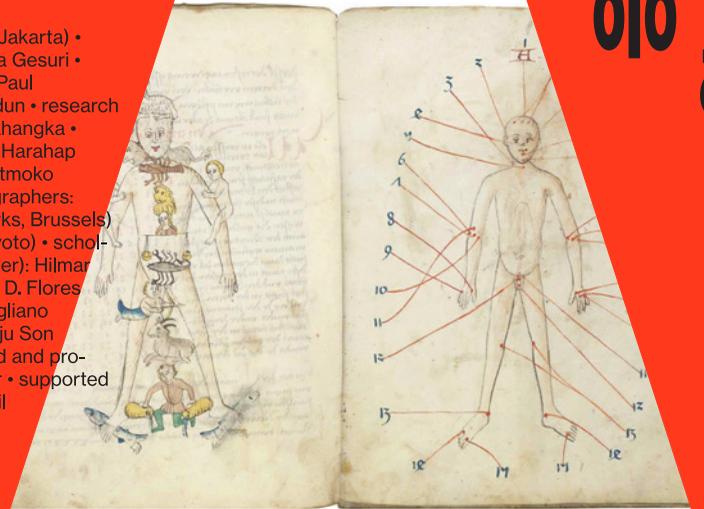
〈응시, 투영, 신화〉는 몇몇 역사적 궤적을 통해 오리엔탈리즘의 담론과 실재를 되돌아보는 기획으로, 전시와 두 편의 안무 및 심포지엄을 병치함으로써 오리엔탈리즘의 복잡성을 세 갈래에서 논의하고 분석하는 접근법을 마련한다.

1978년 에드워드 사이드에 의해 발생된 오리엔탈리즘 담론은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친 서구 식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의 포스트모더니티 속에서도 새로운 위장 속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가장 최근의 사례는 21세기의 큐레이팅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 투영, 신화〉는 아카이브 자료를 추적하고 안무를 조사 방법론으로 활용하며 학술적 증재를 가미함으로써 오리엔탈리즘과 대면하고 오리엔탈리즘을 다시 사고한다. 그렇게 복잡한 궤적이 그려지고 장소가 결정된다. 중심은 파리로,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파리에서 있었던 식민주의 모더니티 기획을 무용 공연 및 '타자성'에 대한 재연/현전 속에서 드러낸다. 이 기획은 발리 섬, 프롬펜, 도쿄, 서울, 평양을 거치며 무용 주체의 특정 공연이 어디에서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한다. 이러한 장소들에서 타자의 춤은 어떤 방식으로 이국화되었는가? 제국적 응시는 어떻게 상상을 불러일으켜 이국성을 투영하고 신화를 생산하며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오리엔탈리즘적 응시를 재현하도록 하였는가? 이 모든 역사적 과정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현대무용과 컨템포러리 댄스를 함께 형성했는가? 아시아 모더니티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큐레이팅 작업을 저변의 이 모든 질문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초기의 발화들은 결국 '아시아'라는 관념을 형성하는 사고로 이어졌으며, 이는 아직도 오늘날 전세계적인 무용의 맥락 속에서 아시아의 동시대성을 구현하는 데에 사용하는 공통분모로 여겨지고 있다.

기획: 헬리 미나르티

Curator: Helly Minarti (Jakarta) • local producer: Dian Ika Gesuri • exhibition designers: Paul Kadarisman, Tony Tandun • research co-ordinator: Rosdianahangka • researchers: Sulaiman Harahap (Jakarta), Joned Suryatmoko (Yogyakarta) • choreographers: Arco Renz (Kobalt Works, Brussels) and Zan Yamashita (Kyoto) • scholars (in alphabetical order): Hilmar Farid (Jakarta), Patrick D. Flores (Manila), Marta E. Savigliano (Buenos Aires) and Okju Son (Seoul) • commissioned and produced by ACC Theater • supported by Jakarta Arts Council



Gaze, Project, Myth

응시. 투영. 신화. 10월 8일 9일 10일 11일

예술극장 내 다수의 공간
2016.
3.11 금, 3.12 토, 3.13 일:
정오-자정

Producer and program advisor:
Louiza bvba / Els Silvrants-Barclay
Production manager: Sarah Parolin

30년쯤 전, 나는 토인비에게 역사상의 어떤
시대와 장소에서 가장 태어나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서력이 시작된 직후의 신장(오늘날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라고 답했다.
당시의 중앙아시아는 불교, 인도, 그리스, 이란,
중국 문화가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이케다 다이사쿠

〈월경과 혼재〉는 실크로드를 사고 수단이자 '신비성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삼아 오늘날 국가, 인종, 경제성장이라는 기준을 통해
시간의 척도 속에 국경을 결정짓는 기존의 문화적 정치적 규범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실크로드를 횡단하는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역사적이고 동시에 초월적인 역사적 사고로, 그리고 물리적 현실과
상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사고와 행위들을 주관하는 구조를
월경하는 여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실크로드는 교역과 이주의 낭만적인 이미지로만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날 초국가적 슈퍼 인프라의 전망에 대해 느끼는
것만큼이나, 실크로드에서 이뤄졌던 육로무역의 규모에 열광했을
것이다. 이 둘 모두 공간과 이동을 규정하는 맥락 및 방식 내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유목민이든 비유적인 유목민이든, 이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지평 너머로 갈 수 있게 하는 추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탐색의 핵심에 있다.

다시 한 번 유목민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초월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맥락, 바라보는 관점, 문화적 뉘앙스, 정치적 틀은 늘
변화하며,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초월적인 힘들을 살아 숨쉬게 할
동시대적인 형식을 발명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행적으로 뒤엎힌 대담과 강연, 상영과 퍼포먼스로
구성될 것이다. 동등한 토대 위에서 뒤엎힌 채 산만하게 전개되는 예술
공연을 통하여 서로 다른 형식의 지성이 교감하도록 하고자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여러 공간을 배회하며 사흘 저녁 동안 역동적으로
펼쳐질 이 프로그램은 관객들을 유라시아의 심원한 시공으로 이끌
것이다.

요우미는 베이징 출신의 미디어 예술가이자 독일의 쾰른 미디어
아트 아카데미의 연구원으로, 현재 자신이 실제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방문했던 공간인 실크 로드와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 요우미

- 참여 작가:
정금형
로렌스 아부 함단(Lawrence Abu Hamdan)
디안 라브로(Diane Rabreau)
터바이어스 레벨(Tobias Revell)
로이스 응(Royce Ng)
루시 투마(Lucie Tuma)
슬라브스 앤드 타타르스(Slavs and Tatars) 외

Photos© the artist

Transgression and Syncretism

월경과 혼재 3월 11일 12일 13일



타렉 아부 엘 페투 브뤼셀/카이로

〈시간의 빛장이 어긋나다〉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일어난 두 개의 핵심적인 전시를 재연하고 미래의 행사를 미리 펼쳐 보이는 기획이다. 안달루시아의 철학자 이븐 아라비가 주창한 '시간은 유동적인 공간이며 공간은 얼어붙은 시간'이라는 관념에서 영감을 얻은 이 기획은, 시간과 도시를 넘나들며 과거와 미래의 예술 행사들 사이를 오감으로써 장소와 현재의 조건들이 부여하는 제약을 탐구한다.

이 기획은 1974년에 바그다드에서 있었던 〈최초의 아랍 예술 비엔날레〉와 베이징에서 있었던 〈중국/아방가르드〉 전시를 소환하는 한편 옥야카르타에서 2022년에 열릴 미래의 행사를 불러낸다. 이 세 가지 행사는 동시대 예술 작업의 배경으로 자리할 것이다.

첫 번째 배경은 바그다드의 아랍 예술 비엔날레로, 이 비엔날레에 관한 규약은 1973년 다마스쿠스에서 열린 아랍 조형 예술가 협회 모임을 통해 체결되었다. 그 해에는 아랍-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아랍 민족주의가 짧게 부흥하였으며, 이는 결국 세계 석유 위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조건들이 예술가, 작가, 사상가들로 하여금 한데 협력하여 범 아랍 비엔날레를 발족하도록 이끌었다. 아랍 국가들의 수도를 두루 거칠 계획이었던 이 비엔날레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행사는 1976년 라바트에서 개최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랍 민족주의 사상은 무너졌고, 비엔날레 기획도 마찬가지였다.

1. 〈시간의 빛장이 어긋나다〉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1막 5장 끝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작품 말미에서 무덤 파는 햄릿이 그의 아버지가 살인과 끔찍한 전쟁을 통해 영토를 차지한 바로 그날 태어났다고 말한다. 햄릿이 자신의 탄생이라는 저주를 돌이키고 싶어하는 데에서도 나타나듯, 〈햄릿〉은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이라는 은유를 시사하고 있다.

☐ Ali Cherri, *The Disquiet*, film HD, 20 min



Photo © the artist and Galerie Imane Farès

극장 1
2016.
4.8 금-4.17 일

기획: 타렉 아부 엘 페투

두 번째 배경은 1989년 베이징의 중국미술관에서 예술가, 큐레이터, 비평가들이 발족한 〈중국/아방가르드〉 전시다. 동시대 중국 예술의 역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순간으로 이름난 이 전시는 천안문 사건 몇 개월 전에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당국에서는 몇몇 도발적인 퍼포먼스 작품을 문제 삼아 개막 후 세 시간 만에 전시를 중단시켰는데, 특히 샤오루가 자신의 설치 작품 〈대화〉에 두 번 총을 쏜 것이 문제가 됐다. 루는 경찰에 자수하며 퍼포먼스를 완성했고, 조사 결과 사용된 총은 공산당 고위 간부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는 사흘 더 지속되다가 전시장에 세 개의 폭탄을 설치했다는 익명의 투서로 인해 강제 중단되었다.

세 번째 배경은 인도네시아의 옥야카르타에서 열릴 미래의 행사다.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 남부의 예술가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1955년 반동 회의의 반향을 담아낸다.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국가의 붕괴나 식민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것과 같은 거대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시간의 빛장이 어긋나다”는 공간과 시간 사이를 뛰어넘으며 정치와 예술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고 중요한 균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의 위치를 검토한다. 이 기획은 전제국가의 구조 앞에 놓인 예술가들의 행위를 재고하고, 식민-제국주의 권력에 맞서는 초국가적 연대를 살피며, 국가의 경계 너머를 응시한다.

Commissioned and co-produced by
ACC Theater and Sharjah Art
Foundation

The Time is Out of Joint

시간의 빛장이 어긋나다 4월 8일-17일

영화감독 라야 마틴(필리핀, 1984년 출생)과 평론가 앙투완 티리옹(프랑스, 1981년 출생)이 기획한 <언도큐멘타>는 유실된 필름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비경쟁 영화제로, 영화의 파편들을 통해 세계 구석구석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불러낸다. <언도큐멘타>라는 제목은 유럽에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현대 예술 전시회 '도큐멘타'에 경의를 표하는 한편, 돌이킬 수 없이 사라져버린 영화사의 일부와 정체성과 역사를 승인 받지 못한 사람들의 존재 조건을 가리킨다.

이 영화제는 다양한 섹션을 제공한다. '오늘날의 흐름'에서는 오늘날의 사안을 건드리는 영화들을 보여준다. '감독판'은 이전까지 검열로 인해 볼 수 없었던 영화들을 모은 섹션이다. '무성영화'는 사운드가 세계의 이미지와 맺는 관계를 탐구한다. 또한 오랜 분투를 통해 중대한 공헌을 남긴 감독에 관한 '감독 회고전'도 준비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에 집중하는 '주목할 만한 국가'의 경우 전시로도 확장된다. 영화 상영 외에도 <언도큐멘타>는 시각 예술가에서부터 평론가와 영화업계에서 활약 중인 이들과 세계 곳곳에서 초청한 게스트들의 강연과 대담도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의 과거 속에서 사라진 아카이브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화재로 인해 생겨난 필름릴의 무덤, 1959년 파리

☐ 코레히도르 섬에 있는 폐허가 된 미국 극장, 2012년 필리핀

라야 마틴 앙투완 티리옹



Production: Olga Rozenblum (red shoes) with Soizic Perrodou



Photo © the artist

다수의 공간
2016.
4.27 수-4.30 토

기획: 라야 마틴, 앙투완 티리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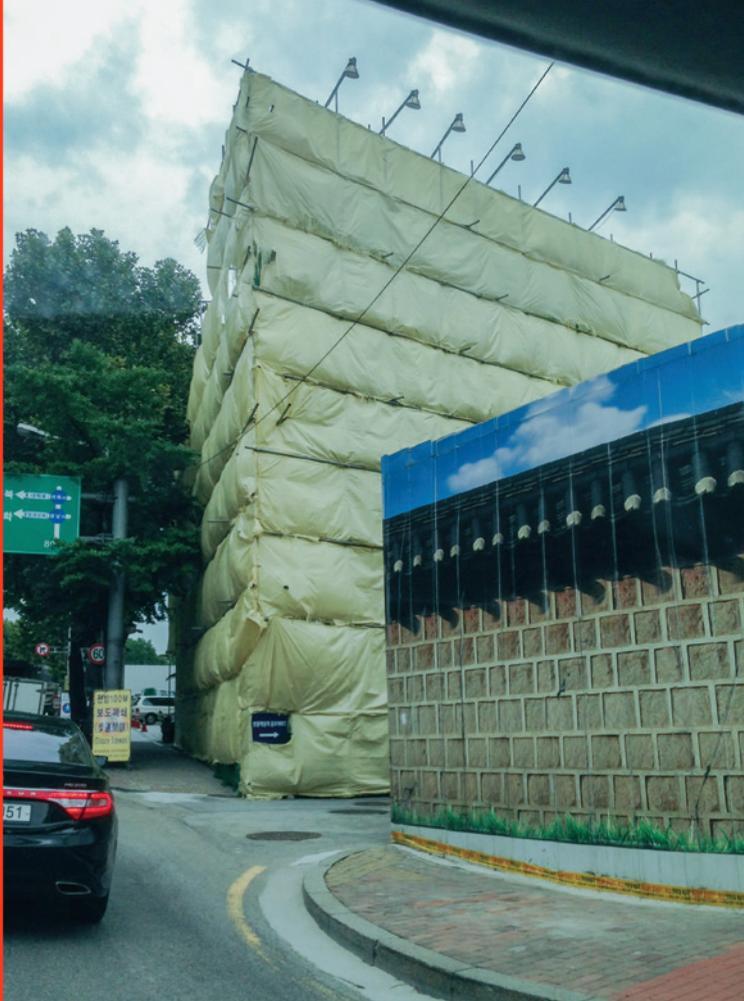
본래 영화에 쓰였던 재료인 질산염 셀룰로이드는 부적절한 보관 환경에서 특정 조건에 이르면 자연발화하곤 했다. 오스 웰스도 영화의 자기파괴적 성질에 관해 유명한 발언을 남긴 바 있다. 현대 산업이 이룩한 다른 많은 발명품처럼, 영화에는 진보와 파국, 승리와 붕괴가 뒤섞여 있다. 유실되고 회수된 촬영본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았던 탓에 승자의 역사가 생겨났으며, 그로 인해 특정 과거가 무한정 재생되면서 다른 역사는 영원히 사라지기에 이르렀다. 아카이브가 말해질 수 있는 존재의 법이라면, 잃어버린 아카이브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언도큐멘타>는 역사 속에서 철저히 배제된 재료의 잊혀진 면모를 통해 역사를 되돌아본다. 하지만 <언도큐멘타>는 그것을 서구세계의 보편성이 낳은 피해자로 간주하기보다는 하나의 선택으로 내다본다. 유실된 문서관 법의 레이더 하에 말해질 수 있었던 것에 관한 역설적인 증언이다. 이는 제임스 C. 스콧이 피지배층의 하부정치는 숨은 기록 속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던 것과 흡사하다. 역사가 자기 존재에 관한 흔적을 가장 많이 남긴 이들을 통해 말해지는 것이라면, 잘못 전해졌던 이들뿐만 아니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음이 분명한 이들에게 관심을 돌림으로써 배움을 얻을 수도 있다. 고다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기억해야 할 의무 따위는 없다. 망각할 권리만이 있을 뿐이다.

UNdocumenta

언도큐멘타 4월 27일-30일

장영규 서울



씩 달마다 언어가 하나씩 사라진다. 언어는 정보와 지식의 매개체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생각과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소멸과 변화는 이슬이슬한 경계를 오간다. 전통은 동시대의 동력에 의해 끊임없이 재탄생될 때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음악가이자, 비빙, 어어부밴드 등 음악 단체의 창립자인 장영규는 <사라져가는 목소리들>에서 근대의 도래와 함께 변방으로 밀려난 소수의 언어와 지식을 오늘로 소환하고자 한다. 사라져가는 암묵지들의 동시대적 변주가 다시금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오래된 미래에 대한 탐색이다.

다섯 개의 아시아 나라에서 활동하는 다섯 명의 음악가들이 사라진 과학기술과 기억으로만 전수되는 지혜를 추적한다. 이 리서치를 바탕으로 작곡을 하고, 그 결과물을 서로 공유한다. 이 재료들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원본 트랙에 새로운 레이어들이 덧입혀진다. 그다음, 작곡가들은 서로 만나 결과물과 작업 방식을 공유한다.

전례 없는, 이 독특한 작곡물을 선보이기 위한 최적의 형식은 무엇일까? 소멸 직전에 이르렀던 것들이 어떻게 복원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미래와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을까?

Vanishing Voices

사라져가는 목소리들 5월 13일-15일

20세기 공연예술사에서 오늘날 가장 큰 파장으로 이어진 변혁의 순간들을 재방문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은 예술가를 중심에 위치시킨다.

예술극장은 개관 페스티벌과 시즌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사는 시대와 세계, 그리고 예술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을 담은 예술적 개성에 집중한다. 그 한 축으로 '아워 마스터'에서는 연극계와 무용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지난 세기 공연예술사에 있어 오늘날의 가장 큰 파장으로 이어진 변혁의 순간들을 재방문한다.

예술극장은 20세기와 21세기 동시대 공연예술의 국제적 담론화에 폭넓게 이바지해 온 큐레이터를 초대하여 '아워 마스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초대 큐레이터 프리 라이젠은 기존의 미학적 규범과 예술계의 유럽 중심주의를 뛰어넘는 다양한 비전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왔다.

앞으로 계속될 시리즈의 첫 세트로 프리 라이젠은 개관 페스티벌과 시즌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마스터'이기도 한 거장들을 선보이고 공연예술사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제시한다.

필립 글래스/로버트 윌슨 뉴욕

1976년 초연된 <해변의 아인슈타인>은 기존 공연예술계에 통용되던 모든 관습과 규칙을 뛰어넘은 공연으로 평가받는다. 필립 글래스는 전통적인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곡 대신 신시사이저, 목관악기, 목소리를 위해 작곡을 했다. 로버트 윌슨은 뚜렷한 내러티브 없이 강렬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이는 안무가 루신다 차일즈의 추상적인 안무 시퀀스와 병치되었다. 작품은 초연 당시 혁명적인 시도로 여겨졌으며, 여전히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해변의 아인슈타인>은, 마치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물이 그러했듯, 시대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 또한 초월한다.



Photo©Lucie Jansch 2012

극장 1
2015.
10.22 목: 6:30pm,
커뮤니티 프리뷰
10.23 금, 10.24 토, 10.25 일:
6:30pm
280분

Music and lyrics: Philip Glass • direction, set and light design: Robert Wilson • choreography: Lucinda Childs • spoken text: Lucinda Childs, Samuel M. Johnson, Christopher Knowles • music director: Michael Riesman • co-director: Ann-Christin Rommen • directing associate: Charles Otte • lights: Urs Schönebaum • sound design: Dan Dryden • costumes: Carlos Soto • hair and make-up: Campbell Young Associates, Luc Verschuere • with: Helga Davis, Kate Moran, Tim Fain, Dominic Serra, Charles Williams, The Lucinda Childs Dance Company, The Philip Glass Ensemble, Einstein on the Beach Chorus • produced by: Pomegranate Arts, Inc. (Linda Brumbach, Executive Producer)

본 공연은 인터미션 없이 진행되며, 관객은 공연 중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용히 입퇴장하실 수 있습니다.

The 2012 production of *Einstein on the Beach, An Opera in Four Acts* was commissioned by: BAM; the Barbican, London; Cal Performanc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Luminato, Toronto Festival of Arts and Creativity; De Nederlandse Opera/ The Amsterdam Music Theatre; Opéra et Orchestre National de Montpellier Languedoc-Roussillon; University Musical Society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Originally produced in 1976 by the Byrd Hoffman Foundation • World Premiere on March 16, 2012 Montpellier, France

Einstein on the Beach, An Opera in Four Acts

해변의 아인슈타인, 4막의 오페라 10월 22일 23일 24일 25일

네온
극장 정문, 극장 오픈홀
2015.9.1 화-
2016.5.31 화

엠티 스테이지
극장 오픈홀
2015.
11.26 목-12.13 일

팀 에체스 세필드

아워 마스터

팀 에체스는 다방면에서 작업을 해온 작가로, 영국의 세계적인 아방가르드 단체 '포스트 엔터테인먼트'를 이끌고 있다. 팀 에체스는 어린아이의 호기심과, 날카롭고 비판적인 지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유쾌함을 잃지 않는 이 시대의 몇 안 되는 예술가이다. 그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두 편의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고, 예술극장을 위해 두 개의 네온 작품을 제작하여 1년간 설치할 예정이다.

〈더티 워크〉는 나무로 된 작은 무대 위에서 벌어진다. 두 명의 퍼포머는 서로 번갈아 가며 자신이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스펙타클한, 가장 흥쾌하고, 가장 불가능한 공연을 상상한다. 공연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머리 속이다.

〈마지막 탐험〉에서 포스트 엔터테인먼트는 한 순간도 눈을 땄 수 없는 대규모 스펙타클을 선보인다. 퍼포머들은 집에서 만든 의상을 입고 거대한 바다 괴물, 유령, 전쟁광, 전진하는 로봇, 그리고 춤추는 나무들의 가장행렬을 이어나간다. 이 혼란을 틈타고 여기 저기에서 눈에 익은 등장인물들이 보인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 해체된 잔재들 속에서, 이들은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곧이어 사라진다.

진정한 탈장르적 아티스트이자,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선구자라고 부를 수 있는 팀 에체스의 이번 프로젝트는 사진 작가 휴고 글렌다잉과 협업한 〈엠티 스테이지〉와 두 개의 〈네온〉 설치 작업으로 마무리된다.



Dirty Work
Conceived and devised by Forced Entertainment • performers: Robin Arthur, Claire Marshall, Cathy Naden
Direction Tim Etchells • text: Tim Etchells and the company • design: Richard Lowdon • lighting design: Nigel Edwards • soundtrack: John Avery / found sources • *Dirty Work* is a Forced Entertainment production

The Last Adventures
Conceived and devised by Forced Entertainment & Tarek Atoui • direction: Tim Etchells • sound score and composition: Tarek Atoui • text: Tim Etchells • design: Richard Lowdon • lighting design: Nigel Edwards • sound: Daniel Teusner • production: Jim Harrison • dramaturgical advice: Adrian Heathfield • choreographic advice: Kate McIntosh • Forced Entertainment performers: Robin Arthur, Richard Lowdon, Claire Marshall, Cathy Naden • guest performers: Mark Etchells, Nada Gambier, Phil Hayes, Teja Reba, Bruno Roubicek, John Rowley, Kylie Walters • live guest musician: Charbel Haber • a production of Forced Entertainment and Ruhrtriennale -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 Arts • co-produced by Fierce Festival, Birmingham; Künstlerhaus Mousonturm, Frankfurt; Tanzquartier, Wien; Warwick Arts Centre, Coventry

Forced Entertainment artistic team: Robin Arthur, Tim Etchells (Artistic Director), Richard Lowdon (Designer), Claire Marshall, Cathy Naden and Terry O'Connor • Forced Entertainment management team: Eileen Evans (Executive Director), Jim Harrison (Production Manager), Natalie Simpson (Office Manager), Sam Stockdale (Marketing Manager)

Forced Entertainment Online:
www.forcedentertainment.com
@ForcedEnts
#thelastadventures #dirtywork

Tim Etchells online:
www.timetchells.com
@Tim_Etchells

Photo © Hugo Glendinning

마지막 탐험
극장 1
2015.
11.27 금, 11.28 토: 7pm
75분

더티 워크
아틀리에 1
2015.
11.28 토, 11.29 일: 5pm
75분

Dirty Work / The Last Adventures / Empty Stage / Neon

**네온 / 엠티 스테이지 /
마지막 탐험 / 더티 워크
9월 1일-5월 31일 /
11월 26일-12월 13일
11월 27일 28일 29일**

연극/전시

크리스토프 마탈러 베를린

With: Tora Augestad (Kekke), Altea Garrido (Frauke), Olivia Grigolli (Heike), Lilith Stangenberg (Silke), N. N. (Tessa Blomstedt), Irm Hermann (N.N.), Clemens Sienknecht (Helfried), Ulrich Voß (Ein Retrovirus), Martin Zeller (Young Vallotti), and the voice of Josef Ostendorf (Cantus firmus)

Director: Christoph Marthaler • stage designer: Anna Viebrock • costumes: Anna Viebrock • light design: Henning Streck • music: Clemens Sienknecht • art direction: Gerhard Alt • sound: Klaus Dobbrick • video: Konstantin Hapke, Adrian Lamande, Christoph Marthaler, Klaus Dobbrick • dramaturgy: Malte Ubenauf • a production of the Volksbuehne am Rosa-Luxemburg-Platz Berlin



Tessa Blomstedt gibt nicht auf

스위스 연출가 크리스토프 마탈러는 섬세한 아이러니와 불일치의 미학으로 세계적 반열에 올랐다. 그가 이번에 베를린 민중극장과 협업하여 만든 작품에서는 우리, 즉 평범한 사람들의 욕망과 꿈, 소망에 대해 다루고 있다.

테사 블롬슈테트는 여러 나이대의 여자들을 대변한다. 그녀는 진실한 사랑의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꿈꾼다. 공연은 절망적인 비극이었다가도, 클래식 음악과 유치한 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진실된 감정을 갈망하며 노래하다가도, 키치한 감정의 소비주의적 해소로 치달는다. 무대에는 탁월한 연기와 과장된 슬랩스틱이 공존한다. 크리스토프 마탈러는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가 말하는 삶은 지치고, 실망스럽고, 절망적이지만, 때로는 그 너머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알팍한 희망도 늘 존재한다. 그의 반영웅(anti-hero)들은 부르주아적이고, 반동주의적이며, 이기적이고, 비겁하지만, 지극히 사랑스럽다.

극장 1
2016.
3.26 토, 3.27 일: 6pm
130분

테사 블롬슈테트는 포기하지 않는다
3월 26일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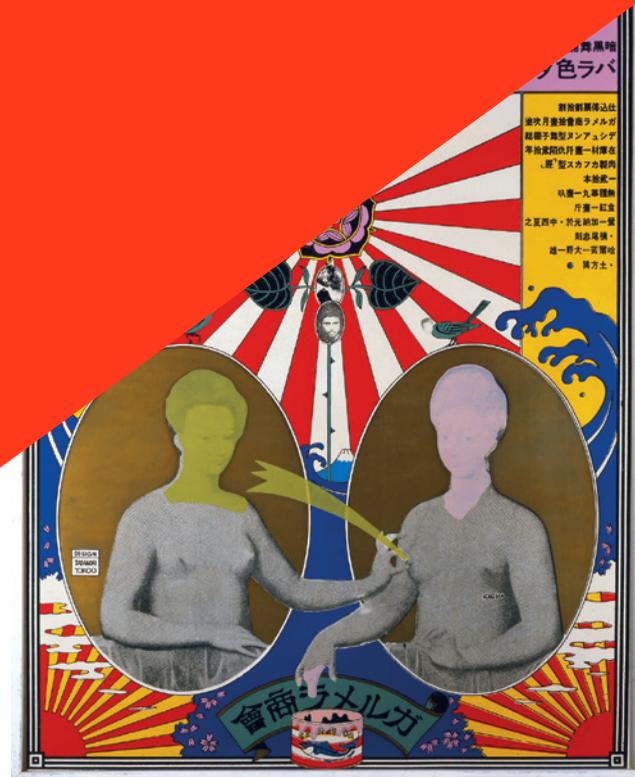
히지카타 다쓰미 도쿄

1960년대 초, 히지카타 다쓰미는 '어둠의 춤'이라는 의미를 지닌 안코쿠 부토를 탄생시켰다. 부토는 당시 전후 일본 사회를 관통하고 있던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역사적, 그리고 예술적 변혁의 정점을 상징하기도 한다. 거리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위태로웠던 당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테라야마 슈지의 연극, 오시마 나기사의 영화, 아카세가와 겐페이와의 미술, 요코오 타다노리의 디자인은 가법지만 끈질기게 예술과 정치의 경계에 대해 질문했다. 미학과 윤리는 근본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특히 1960년대 일본에서 그 연대는 더욱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프로젝트는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그들이 히지카타와 맺었던 관계를 추적하고, 그들의 시점에서 일본의 1960년대를 재조명한다. 이는 오늘날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재편성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본 프로그램은 히지카타 타츠미와 부토 탄생 직전을 중심으로 1960년대의 일본과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공동작업에서 영감을 얻은 전시, 영화, 퍼포먼스로 이루어져 있다. 머나먼 과거처럼 느껴지는 전쟁 직후의 이 시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도호쿠 지진 이후 또 한 번 '재건'을 논하고 있는 일본의 현재 사회와 맞닥뜨려진다. 히지카타의 부토와 그가 설립한 일본의 범아시아 극단 등 1960년대에 벌어진 예술적 실험들이 현재를 오가며, 후기 식민 시대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새로운 예술을 고안하고, 미래의 식민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방해야 한다.

다수의 공연
2016.
5.6 금, 5.7 토, 5.8 일

기획: 네지 피진



Poster designed by Yokoo Tadanori © Keio University Art Center

Hijikata Tatsumi—Japanese Revolution of a Body

히지카타 다쓰미—육체의 반란 5월 6일 7일 8일

윌리엄 켄트리지 요하네스버그



예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치적, 역사적 메시지를 던져왔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거장 윌리엄 켄트리지는 정치적이면서도 시적인 <율리시즈의 귀환>에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선명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1998년에 초연된 이 작품은 몬테베르디의 클래식 오페라를 필립 피에를로의 절묘한 대사와 작곡, 윌리엄 켄트리지의 살아 움직이는 목탄화, 그리고 핸드스프링 퍼펫 컴퍼니의 목각 인형을 통해 재해석했다. 또한 중세 음악 전문가인 필립 피에를로가 이끄는 리체르카르 콘소트가 연주를 맡았다. 극의 배경은 20세기 중반 요하네스버그, 윌리시즈의 임종 자리이다. 윌리시즈는 오페라 퍼포머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젊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귀향, 행운, 사랑,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변치 않는 노래를 한다.

켄트리지의 신작 <더욱 달콤하게, 춤을>에서는 움직이는 이미지가 '아프리카 임마누엘 어셈블리 브라스 밴드'의 연주와 함께 길이 45미터에 달하는 프리즈 장식처럼 이어진다. 목탄으로 그린 풍경을 배경으로 인간군상의 행렬이 놀라운 광경으로 펼쳐지는데, 사람들은 고대의 행진이나 끝도 없이 이어지는 난민 행렬에서처럼 물건을 나르고, 노래하고 춤추며 무언가를 애도하고 있다. 춤의 기저에는 언제나 모순이 존재한다. 춤은 삶과 죽음을 함께 포용한다. 춤추는 이는 동반자들을 목적으로 이끄는 한편, 중세의 관점에서 너무 격렬한 춤, 에너지의 분출은 언제나 죽음이 그 곁에 있도록 한다.

Photo © studiohanswilschutEYEFILM 30

더욱 달콤하게, 춤을
극장 1
2016.
5.20 금-5.29 일
15분

More Sweetly Play the Dance
8-channel video installation with four megaphones, sound • HD video 1080p / ratio 16:9 • duration 15 minutes (includes end credits) • video editing and construction: Janus Fouché • music composition: Johannes Serekeho • music performed by the African Immanuel Essemblies Brass Band (under Bishop R.E. Sefatsa) • vocals: Bham Ntabeni, Moses Moeta • percussion: Tlale Makhene • sound mix: Gavan Eckhart • costume design: Greta Goiris • choreography and dance: Dada Masilo • performers: Dada Masilo, Tlale Makhene, Bham Ntabeni, Thato Motlaolwa, Mncedisi Shabangu, Luc de Wit, Joanna Dudley, Sue Pam-Grant, Lara Adine Lipschitz, Lawrence Maduna, Samson Falowo, Spho Zungu, Spho Seroto, Agnes Khunou, Maria Ndlela, Maphokoane Serobanyane, Okechukwu Adinnu, Thuthuka Sibisi, Matthews Phala, Stella Olivier, Motsamai Thabane, Members of African Immanuel Essemblies Brass Band, Members of First St John Brass Band

율리시즈의 귀환
극장 2
2016.
5.28 토, 5.29 일: 6pm
100분

Il Ritorno d'Ulisse (The Return of Ulysses)
An opera by Claudio Monteverdi • director and video animation: William Kentridge • assistant director on the revival: Luc de Wit • musical director and music arrangements: Philippe Pierlot • set design: Adrian Kohler and William Kentridge • puppets and costume design: Adrian Kohler from Handspring Puppet Company • lighting design: Wesley France • puppet construction: Adrian Kohler and Tau Qwelane • video film editing: Catherine Meyburgh • animation assistants: Anne McIllleren and Nina Gebauer • picture and video research: Gail Behrmann • with: singers (provisional line-up): Julian Prégardien, Jean- François Novelli, Valerio Contaldo, Hanna Bayodi, Romina Basso, Antonio Abete, Anna Zander • musicians: Ricercar Consort on period instruments (viola da gamba, harp, theorbo) • puppeteers: to be confirmed • stage manager and video operator: Kim Gunning • company tour manager: Wesley France • technical manager: Herman Sorgeloos • 1998 production: La Monnaie / De Munt (Brussels, Belgium), Handspring Puppet Company (Cape Town, South Africa), Wiener Festwochen (Vienna, Austria), kunstenFESTIVALdesArts (Brussels, Belgium) with generous support of the Flemish Government • Handspring Puppet Company is represented worldwide by Quatenaire / Sarah Ford. www.quatenaire.org

More Sweetly Play the Dance / Il Ritorno d'Ulisse (The Return of Ulysses)

더욱 달콤하게, 춤을 / 윌리시즈의 귀환 5월 20일-29일, 28일, 29일

오페라 / 영상설치

아시아 원도우 프레젠테이션

페스티벌 센터

아시아 원도우는 예술극장이 첫 시즌에서 가장 주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시아의 다섯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기획자 5인이 아시아의 동시대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개관 페스티벌 동안 각각의 큐레토리얼적 접근에 기반한 연구와 스케치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아시아의 역사를 쓰기 위한 새로운 아시아적인 방식을 고안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이는 곧, 아시아의 여러 목소리가 외부에 의한 역사 쓰기로 재편성되지 않고, 아시아 스스로 역사적 주체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다.

헬리 미나르티

응시. 투영. 신화
9.7 월: 11am

요우미

월경과 혼재
9.9 수: 11am

라야 마틴 / 앙투완 티리웅

언도큐멘타
9.8 화: 11am

타렉 아부 엘 페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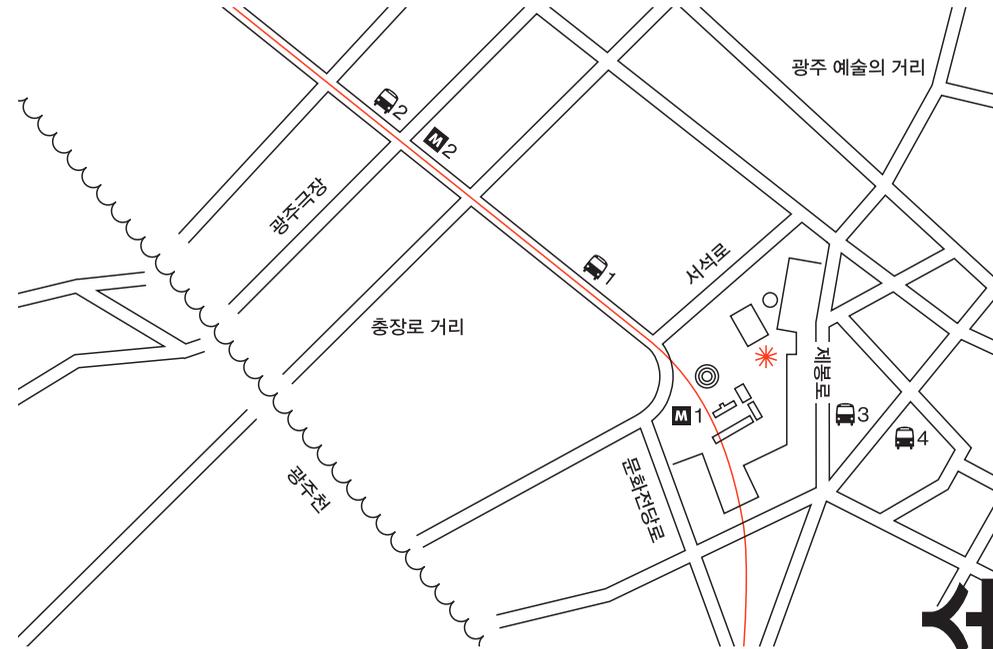
시간의 빗장이 어긋나다
9.10 목: 11am

장영규

사라져가는 목소리들
9.11 금: 11am

컨템포러리 토크

아워 마스터 프로그램의 공연이 열리는 매 주말, 프로그램에 초청된 '마스터'들과 함께 컨템포러리 토크를 이어간다. 이번 토크 시리즈는 단순히 작품의 명성과 미학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예술의, 예술가의, 그리고 예술 형식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한다. 지난 세기 공연예술의 역사와 지평을 바꾸고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거장들의 통찰을 엿본다. 그들의 관점을 통해 고전은 과거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질문하고 미래를 제안할 수 있는 틀로 탈바꿈할 것이다. 컨템포러리 토크는 예술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가 바뀌었던 변혁의 순간들을 재방문하여 또 다른 미래의 변혁을 상상하는 자리이다.



버스 정류장

-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2 금남로4가
- 3 동구청
- 4 조선대 정문

지하철역

- M1 문화전당
- M2 금남로4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페스티벌 센터
- 극장 1
- 극장 1-1
- 극장 2
- 아틀리에 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T 062 410 3617

분류

아시아 윈도우

가격: 원

무료

15,000

15,000

*

*

*

*

R 100,000

S 80,000

50,000

50,000

무료

무료

*

*

*

*

작가

헬리 미나르티

헬리 미나르

헬리 미나르티

요우미

타렉 아부 엘 페투

라야 마틴

장영규

로버트 윌슨/필립 글래스

팀 에첼스

팀 에첼스

팀 에첼스

팀 에첼스

크리스토프 마탈러

히지카타 다쓰미

윌리엄 켄트리지

윌리엄 켄트리지

작품

횡단하는 궤적들: -또 다른, 신화적 -오리엔트

동행 | 아르코 렌츠 (코발트 워크스)

사악한 영혼 | 잔 야마시타

월경과 혼재

시간의 빗장이 어긋나다

연도큐멘타

사라져가는 목소리들

해변의 아인슈타인, 4막의오페라

더티 워크

마지막 탐험

엠티 스테이지

네온

테사 블룸슈테트는 포기하지 않는다

히자카마 다쓰미—육체의 반란

율리시즈의 귀환

더욱 달콤하게, 춤을

* 2016년 1월 중 오픈 예정

티켓 할인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수요일 공연 예매 시

문화패스

•• 24세 이하 청소년

예술인

•• 예술인패스 카드, 예술인 활동
증명서류 제시

10인 이상의 단체

•• 관람 5일 전 예약 단체에 한함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 복지카드 소지자 1인 2매까지

국가유공자

•• 유공자증 소지자 1인 2매까지

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광역시 시민

전당 릴레이

•• 전당 지난 관람 유료티켓 지참하면
확인 후 할인, 1인 2매

예술극장 조기 예매 할인

•• 조기 예매 기간에 예매 시 할인

사랑티켓 예매 시 공연료 지원

•• 24세 이하, 65세 이상 공연료 지원

•• 예매: www.sati.or.kr

•• 문의: T 062 670 7913

50%

30%

30%

20%

50%

50%

50%

50%

20%

20%

30%

개인 10,000원

단체 7,000원

- 티켓 예매시 중복 할인 불가
- 본 할인은 현장 티켓 구매 시 적용 가능
- 티켓 수령시 증빙자료 현장 확인 (증빙자료 미지참 시 차액 지불)

정보
티켓

정보
티켓

예매처

[인터넷 예매]
www.asianartstheatre.org
[전화 예매]
T 062 410 3617
평일 10am-5pm

공연 문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T 1588 556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T 062 410 3617
at-ticket@iacd.kr

크레딧

예술감독

김성희

프로그래밍

드라마투르그: 막스 필립 아센브렌너

프로그래밍 어시스턴트:

김신우, 고유희

프로그래밍팀 코디네이터: 이정은

프로듀서

유병진, 신진영, 김정현, 임리원,

오진아, 박미선, 백보람, 박성호,

박은현, 최윤정

커뮤니케이션

팀장: 구효진

관객 개발: 최윤희, 배성림, 안성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김보용

출판: 김양희

해외 커뮤니케이션: 김참슬

운영

팀장: 조정호

회계: 오수환, 윤한나

인사: 김태현

총무: 정상욱

계약: 김미경

티켓 마스터: 박서현

티켓 매니저: 이경민, 이정혜

기술

팀장: 김지명

무대: 변오영, 김장현, 신지혜

음향: 양필주, 나인권, 김성식, 박지연

조명: 이한준, 이순양, 나종덕, 이광득

텍스트 집필

서현석, 막스-필립 아센브렌너,

프리 라이젠, 헬리 미나르티, 오우미,

타렉 아부 엘 페투, 라야 마틴,

양투완 티리웅, 장영규, 네지 피진

통번역 및 자막 코디네이터

이경후

그래픽 디자인

슬기와 민

국제 자문

프리 라이젠, 로제 크리스트만

조감독

성용희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관

아시아문화개발원

2015년-2016년